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오다정	영 문	DA JUNG OH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트루아 공과대학교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을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비자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고 항공권은 최대한 빨리 구입 할수록 좋습니다.

수강신청은 우리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UTT에 가서 수정 가능하며 수정기간에 인기가 많은 수업은 일찍 자리가 없어지니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트루아는 파리 동역으로부터 기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기차는 1시간에 1대 정도 있습니다. 트루아의 크기는 구미보다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UTT는 트루아 시내에서 차로 15~20분이 걸리며 학교 크기는 금오공대와 비슷합니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지만 겨울이 더 빨리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 그리고 시내에도 마트나 편의 시설은 모두 잘되어 있고 공원이 매우 많아 어디서나 산책하기 좋습니다.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방학 때 4주 동안 Intensive course 프랑스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이 course를 마친다면 기본적인 생활 프랑스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프랑스어 수업 2개와 조별수업 GE44 한국인 교수님의 환경 수업 EV13을 수강했습니다. 프랑스어 수업은 외국인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어서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EV13은 환경의 기초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고, GE44는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프랑스어 수업은 방학 때 프랑스어 수업을 수강한다면 특히 추천합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점수를 1~2 등급씩 낮게 주므로 시험을 잘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학교 안 학교 밖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인실도 화장실, 샤워부스, 방은 따로 사용하고 부엌, 거실만 따로 사용합니다. 저는 시내 1인실에 살았지만 시설은 학교 안 기숙사 cle'd 다인실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한달에 380eur인데 프랑스 정부 주거보조금 120eur을 받아 한달에 260eur였습니다. 비용은 기숙사마다 모두 다르며 저는 시내 기숙사 1인실 기준입니다. 시내 기숙사는 와이파이, 전기세, 수도세를 따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위 260eur에 미리 포함되어 있었고 정해진 양보다 덜 쓴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220eur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다르지만 가장 큰 비용이 식비였는데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한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초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첫 달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껴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적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은 모두 프랑스인 버디가 한 명씩 정해집니다. sns로 연락 할 수 있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며 친해져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국제팀에서 하는 여행은 8월달에 2번이 있었고 비용에 비해 프로그램은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국제학생단체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들은 저렴한 비용에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 국제팀은 교환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안에는 식당이 여러개 있는데 특히 베트남 음식 식당을 추천합니다. 따로 동아리는 하지 않았지만 한 학기에 20eur를 내고 하는 운동프로그램은 춤, 암벽등반, 배드민턴 등 아주 다양하고 체계적이여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문화척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 시내에 사는 동양인이 많이 없기때문에 마트나 관공서에 갈 때 쳐다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처리를 할 때는 불어가 부족해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트루아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공원이 많아 걸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제가 사는 곳과 너무 다른 곳에 살면서 다름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급해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